

# 폐건전지 · 형광등 집중수거

### 남원시, 11월까지... 폐건전지 10개당 규격봉투 30리터 1장 지급

남원시는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남원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들에게 폐건전지를 수집토록 홍보하고 기업체, 학교,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수거 캠페인을 전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아파트 동별 수거함 시내 배출장소 또는 자체수집 후 환경과(620-6014)에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벽시계, TV 리모콘 등 가정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간 분리배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수거율이 낮아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돼 왔다.

폐건전지는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가정 및 기관에서 일반쓰레기 등과 함께 버려져 매립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폐건전지가 부식돼 토양과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 특히 폐형광등에서 배출되는 수은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시는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회수는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하고,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해 자원 고갈을 지연시키고, 자원분리배출 정착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저탄소 생활을 통한 건강한 남원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남원시 최종영 환경과장은 "2015년에도 집중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폐건전지 1.26톤과 폐형광등 47,466개를 수거 처리한바 있으며 2016년도에는 폐건전지 10개당 규격봉투 30리터 1장을 교환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등 전년 대비 10% 이상 수거목표를 세워 자원 재활용도 하고 환경오염도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한국인의 활력을 책임진다'

### 고창 복분자 선연, '코리아 탑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고창 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이 2016 코리아 탑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특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면서 그 명성을 입증했다.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코리아 탑브랜드 대상'은 서비스 마케팅학회, (사)한국인문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했다.

시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 중 각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객감동, 글로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의 분야로 나누어 브랜드별 전략, 체계, 관리에 관한 전문가 경영 성과분석과 소비자 브랜드인지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여 한국관광공사, KB국민은행, (주)스타벅스 코리아 등의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로는 고창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상평가에서 고창군은 복분자 특구 지정 연장승인과 지리적 표시제, 생산이력제 실시 등의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노력과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청정농산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지원 등의 다양한 노력에 인정받아 특산물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창 복분자 공동 브랜드 선연은



고창 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이 2016 코리아 탑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특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선운산의 자연'의 준말로 선운산 도립공원 주변 일대에서 자생하던 복분자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고창군 전 지역으로 생산이 확대된 복분자와 가공품에 대해 고창군에서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다. 고창 복분자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와 서해안 해풍을 맞으면서 자라 당도, 유효성분, 향 등이 타 지역보다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포도보다 4배, 블루베리보다 2.7

배가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노화방지, 유체피로 회복, 혈관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한국인의 활력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농가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고창 복분자 선연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국 최대 당뇨교육 캠프 순창에서

### 27일~30일 건강장수연구소

순창군이 전국 최대 당뇨관련행사 중 하나인 전국 당뇨교육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히 전국적 집중을 받고 있다.

군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전국 당뇨교육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당뇨교육 캠프는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에서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대한당뇨병학회와 (사)한국당뇨협회 소속 의료진 30~4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자가혈당관리를 통한 당뇨병 관리법 습득, 식사관리 및 운동요법을 배울 수 있다.

군은 전국 당뇨교육 캠프에 참여할 당뇨병 환자 및 가족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6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전화 063-650-1527번이나 (사)한국당뇨협회 사무국 02-771-8542~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숙박 식비를 포함해 회원

18만원이며 비회원은 21만원이다.

이번 전국 당뇨교육 캠프 참여자들은 의료진과의 개인상담은 물론 식사, 운동, 약물에 대한 소그룹 교육, 집중혈당관리, 한끼 식사 치러보기 등을 체험하고 당뇨에 대한 최신 치료지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전국 당뇨교육 캠프에는 당뇨 명의 (사)한국당뇨협회 회장 박성우 교수 등 국내 최고 의료진이 참여해 믿을 수 있다. 당뇨캠프 홍보대사인 텔런트 김서원씨도 참여한다. 또 강천산보림치유 힐링산책로 등 지역의 치유관광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전국 당뇨교육캠프는 순창군이 당뇨병을 중심으로 한 대사성질환 치유를 테마로 해 관광산업과 농산물 판매 등과 연계하는 사업을 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얻은 성과다.

군은 앞으로도 당뇨클러스터 조성 등 당뇨 치유를 테마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60명으로 교육생이 한정된 만큼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 임실군 '치즈아카데미' 유제품 가공사 16명 배출

임실군이 치즈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실시한 '치즈아카데미'가 앞선 교육 과정 운영으로 16명의 유제품 가공사를 배출, 치즈 전문가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한 치즈아카데미 과정에 관내 낙농가 및 주민 20여명이 참여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중 16명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유제품가공사(3급) 민간자격시험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치즈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유제품에 대한 품질 이론과 실습 교육에 직접 참여해 현장 기술을 습득하고 소비자에게 '임실치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창업을 촉진해 임실치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치즈의 제조 기본이론, 유가공학, 식품위생교육, 치즈 제조실습(아넬젤라, 체다, 할루미 등 12개), 낙농체험목장 및 목장형 유가공공장 등을 비롯한 선진지 견학, 치즈이용 식품 제조(치즈아이스크림)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심화과정인 고급반을 신설해 기초반과 함께 2개의 임실치즈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어린이 'e-스마트 영상 체험도서관'

### 고창군립도서관, 초등학생 학습용 프로그램 제공

고창군립도서관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어린이 이용자들을 위한 e-스마트 영상 체험도서관을 추가로 구축해 운영한다.

12일 고창군립도서관에 따르면 e-스마트 영상 체험도서관은 홈페이지(http://lib.gd.kr)를 통해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며 6000여권의 전자도서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고창군민이 장소와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독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고창군립도서관은 올해 초 e-스마트 영상 체험도서관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독서활동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

e-스마트 영상 체험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습용 프로그램으로 과학, 예술, 역사, 인성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있으며 초등 교과과정과 연계된 총 570편의 체험형 영상도서로 구성되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도서관에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개인 PC를 이용해 자유롭게 접속과 열람이 가능하고, 독후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아 자율학습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자도서관은 고창군민에 한해 도서관에 도서대출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http://lib.gd.kr)에 접속하여 회원번호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 여성소비자회, '성인 한글교실' 운영

(사)한국여성소비자연맹회 임실군지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성인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한글교실은 교육의 시기를 놓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1회 한글교육과 사신대회를 비롯한 공동도서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배움의 즐거움과 질 높은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한다.

임원자 회장은 "모집기간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공중화장실 특별점검

순창군은 본격적 봄 행락철을 맞아 순창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군민에게 참 좋은 순창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공중(이동식)화장실 청결상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터미널과 자연발생유원지, 주유소 등에 위치한 100개소 공중화장실이 대상이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생편의용품 비치 상태, 소독시행, 시설물의 고장 방치 여부, 내·외부 청소 및 청결 등의 관리상태를 점검 점검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점검 기간 이후에는 수시점검을 통해 봄 행락철과 영농기를 맞이해 관광객과 군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 남원 중앙지구대 합동순찰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와 관내 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활동은 주민들에게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원문갑지역, 좁은 골목 공원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구역구석 세밀한 순찰을 한 뒤 시정장치 여부 등을 확인, 심야 여성 안전귀가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쳤다.

박남규 중앙지구대장은 "최근 범죄가 다변화되면서 빈집탐색 등 민생침해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가시적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공감차란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 농협, 고독성 농약 '메소밀' 보상수거 나서

### 30일까지 미개봉 농협서 2배 · 개봉 읍면사무소 5000원

임실군은 '고독성 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과 함께 일제 보상수거에 나섰다.

군은 일제 수거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메소밀 고독성 농약을 구입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 농약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거하고 있다.

반납한 농약은 개봉 유무에 따라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상하고 개봉 농약은 개당 5000

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보상한다.

메소밀은 무색, 무취의 투명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독성이 강한 농약(60kg 성인인 2.8g 섭취 시 반수 치사)으로 최근 들어 경북 충북 등 농촌지역에서 소주와 사이다 등에 혼합되어 음용사고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정 부로부터 업격허 등 등록, 관리되고 있는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 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일제 보상수거 기간에 전량 가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부터 유통사 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은 총 9종으로 메소밀 액제, 메소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리카브 유제, 오메트레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살판 유제 등으로 이러한 농약을 사용하면 과대로 100만 이하,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농작물이 아닌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려다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임실=진홍영 기자